

계간

문화다양성 추천만화 vol.1

성소수자 LGBTQIA+

2023. 6



ஹ통만화연구실

문화다양성 추천 만화 Vol.1

발행일 | 2023년 6월 14일

지은이 | 홈통만화연구실

김성진 | 문종필 | 서은영 | 서찬휘 | 송하원 | 최기현

펴낸곳 | 홈통만화연구실

블로그 | <https://blog.naver.com/hometong2020>


이메일 | hometong2020@naver.com




Copyright (c) 2023 by 홈통만화연구실

Some rights reserved, 이 책의 내용(텍스트)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다양성 추천 만화 Vol.1은
'성소수자(LGBTQIA+)'를 주제로
옴통만화연구실이 추천하는
스물한 권의 작품과 리뷰를 담았습니다



문화다양성 추천 만화 시리즈를 기획하며

‘문화다양성 추천 만화’는 만화를 사랑하는 만화인, 만화 평론가, 만화 칼럼니스트가 함께 모여 ‘문화다양성’이라는 주제로 만화책을 읽고 토론하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좋은 만화를 알리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이 작업은 공공의 영역에서 만화가 활용될 수 있는 역할과 방법을 모색해 본 하나의 결과물입니다. 세상에는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주제와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만화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콘텐츠 시대에 어떤 만화를 읽어야 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만화를 좋아하고 잘 아는 누군가가 좋은 만화들을 모아 추천해 주면 좋지 않을까요?

〈홍통만화연구실〉은 하나의 방법으로, 만화를 좋아하고 만화를 연구하고 많이 읽는 사람들이 만화 큐레이터 역할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프로젝트로 문화다양성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작품들을 구분하고 큐레이션 하는 ‘문화다양성 추천 만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다양성의 가치는 서로 다른 것들의 공존에 있습니다. 다양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시대를 맞아 〈홍통만화연구실〉은 사회의 주류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주목하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공존’을 위해 주목할 만한 주제들을 시리즈로 엮어 추천 만화를 소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문화다양성 추천 만화’는 ‘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따라서 출판 만화책을 포함하여, 웹툰 가운데 책으로 출간된 작품도 선정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상업적인 웹툰이 주류를 형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전체는 아닙니다. 만화와 웹툰은 불량하다는 편견에 끊임없이 시달려 왔으나, 어떤 매체들보다 사회의 문제에 귀 기울이고, 매체가 가진 힘을 발휘하여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고군분투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만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만화’가 무엇인지 알려줄 만한 메신저-비평의 영역-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화다양성 추천 만화’는 ‘좋은 만화’를 발굴하고, 만화를 읽고 토론하는 시민사회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이나 학교에 비치될 수 있는 ‘책’이라는 물성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급속히 디지털로 전환되어 가는 이 시기에, ‘만화책’이 주는 감성과 예술로서의 미학성을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추천 만화 선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해당 주제에 부합하는 내용의 작품일 것, 현재 출판 유통되어 구입할 수 있는 작품일 것, 최소 2~3인의 구성원이 같은 작품을 읽고 토론 후 추천할 것, 공공도서관에 추천할만한 작품일 것. 이렇게 추천된 1차 만화책은 다시 여러 차례의 검토와 논의를 거쳐 최종 리스트를 확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추천 만화작품들은 회원들이 나누어 소개 글을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기본 원칙을 가지고 문화다양성 만화의 첫 번째 주제를 성소수자(LGBTQIA+)로 정했습니다. 우리는 성소수자(LGBTQIA+)를 시작으로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 생태와 환경, 공존을 위한 사회적 주제들을 차례로 다뤄 갈 생각입니다.

성소수자(LGBTQIA+) 추천 만화의 세부 기준은 더욱 면밀하게 정했습니다. 1) 전체 리스트에서 다양한 젠더 정체성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성소수자(LGBTQIA+)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성소수자(LGBTQIA+)의 고민과 현실을 알아가는데 가이드가 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할 것. 3) 당사자성이 드러나는 작품을 우선으로 검토할 것. 4)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성소수자(LGBTQIA+)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메시지가 담긴 작품을 선정할 것. 5) 청소년 이상의 사람들이 모두 읽을 수 있는 작품을 주로 선정할 것.

저희는 위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지난 몇 달 동안 토론하며 최종적으로 21개의 작품을 추천 만화로 선정했습니다. <홍통만화연구실>의 제안은 작품성의 우열을 가리고자 함이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만화를 검토하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작품을 검토하기란 어려웠다는 점도 고백합니다. <홍통만화연구실>이 제안하는 리스트는 만화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한 집단의 주관적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많은 시간과 고민, 노력의 산물이라는 점은 분명하며, 애정과 전문성이 담겨 있는 결과물로서, 이 정도면 공공적으로 활용해도 충분하지 않겠냐는 제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자료는 비영리적 목적에 대해 개인적, 공공적 활용이 모두 가능합니다. 좋은 작품들이 더 많이 읽히기를 바라며, 석 달 뒤에 찾아올 다음 주제도 기대해 주십시오.

홍통만화연구실 드림

김성진 | 문종필 | 서은영 | 서찬휘 | 송하원 | 최기현

Special Thanks to 작품 추천 및 검토에 도움을 주신 성소수자 지인들

성소수자(LGBTQIA+) 관련 용어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성소수자부모모임 홈페이지(<https://www.pflagkorea.org>)에 게재되어 있는 '성소수자 관련 용어'를 신습니다. 사용을 허락해 주신 성소수자부모모임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소수자 Sexual Minority

사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성적 지향 또는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주로 이성애자, 시스젠더)과 구별되는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 또는 그런 집단.

퀴어 Queer

원래는 서양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으나, 현재는 젊은 성소수자들을 중심으로 그들 자신과 자신의 커뮤니티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고 있다. 어떤 이들은 저항의 맥락에서, 어떤 이들은 성소수자 커뮤니티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그들 자신의 좀 더 유동적인 정체성을 표현하기에 적합해서 이 단어를 좋아한다.

성적지향 Sexual Orientation

타인을 향한 성적·정서적인 끌림. 이러한 끌림을 이성애자는 주로 이성에게서, 게이와 레즈비언은 주로 동성에게서 느낀다. 양성애자들은 이성과 동성 모두에게 이러한 끌림을 느낀다.

성별정체성 Gender Identity

자신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혹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지, 내적으로 느끼는 성별.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 정해진 성과 스스로 느끼는 성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여성과 남성으로만 나누는 사회의 성별이분법이 포함할 수 없는, 그리고 성별이분법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다양한 성별 정체성이 존재한다.

지정성별 Assigned Sex

출생 시 성기의 모양이나 형태를 기준으로 출생증명서 등 문서에 기록된 성별. 간성이나 트랜스젠더 같은 경우 본인이 정체화하는 성별과 지정성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LGBT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의 머리글자를 따서 만든 말. 'GLBT'의 순서로 쓰이기도 한다. 퀴

어(Queer)나 탐색중인 사람들(Questioning), 무성애자(Asexual)와 간성(Intensex)까지 포함해 'LGBTAIQ'로 쓰기도 한다.

호모섹슈얼 Homosexual

원래 병리학적 용어로 '동성애'를 뜻했으나, 대개 '호모'로 줄여 부르며 동성애자를 비하하거나 공격할 때 많이 사용된다. 요즘에는 동성애자를 가리킬 때 '호모섹슈얼'보다 '게이'나 '레즈비언'이란 말이 대중적으로 쓰인다.

레즈비언 Lesbian

여성에게 성적·정서적 끌림을 느끼는 여성

게이 Gay

남성에게 성적·정서적 끌림을 느끼는 남성. 서구권에서는 동성애자 모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바이섹슈얼 Bisexual

양성애자 혹은 '바이'라고도 한다. 성적 그리고/또는 정서적 끌림을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느끼는 사람. 양성애자로 정체화하기 위해 남성과 여성 모두와의 동일한 성경험은 필요하지 않다. 때로는 남성에게 때로는 여성에게 끌림을 느끼는 것으로, 양쪽과 동시에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은 아니다. 두 명 이상과 동시에 관계를 이어나가는 경우는 폴리아모리에 해당한다. 양성애자이면서 동시에 폴리아모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헤테로섹슈얼 Heterosexual

이성애자. '헤테로'라고 줄여 부르기도 한다.

논모노[섹슈얼/로맨틱] Non-mono[sexual/romantic]

하나보다 많은 젠더에 성적 끌림 혹은 로맨틱 끌림을 경험하는 사람. 바이로맨틱, 바이섹슈얼, 폴리로맨틱, 폴리섹슈얼, 팬로맨틱, 팬섹슈얼 등이 있다.

바이로맨틱 Biromantic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로맨틱 끌림'(육체적인 끌림이 아닌 감정적인 끌림)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팬로맨틱 Panromantic

바이로맨틱과는 달리, 상대의 성별에 상관없이 로맨틱 끌림을 느끼는 것을 말한다.

에이섹슈얼 Asexual

무성애의 하나로, 어떤 상대에게도 성적 끌림(육체적인 끌림)을 느끼지 않는 것을 말한다. 성적 끌림은 느끼지 않더라도 로맨틱 끌림은 그와 상관없이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다.

폴리아모리 Polyamory

상대방 또는 자신이 서로 외의 사람과도 연애, 섹스, 스킨십 등을 할 수 있도록 관계를 열어 두는 사랑, 또는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

트랜스젠더 Transgender

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과 성별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남성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여성의 성별 정체성을 가진 트랜스여성(MTF, Male to Female), 여성의 몸으로 태어났으나 남성의 성별 정체성을 가진 트랜스남성(FTM, Female to Male), 그리고 젠더퀴어가 있다. 트랜스젠더는 호르몬 요법이나 외과적 수술을 통해 자신의 몸을 성별 정체성과 일치하도록 바꾸려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바라지 않을 수도 있다.

젠더퀴어 Genderqueer

'남성'과 '여성' 둘로만 분류하는 기존의 이분법적인 성별 구분(Gender binary)을 벗어난 종류의 성별 정체성, 또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바이젠더 Bigender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젠더를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한다. 어떤 때는 '남성'으로 의식하고 어떤 때는 '여성'으로 정체화하며, 두 성별을 오간다.

에이젠더 Agender

어떤 성별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성별이 없음'을 자신의 성별이라고 인식한다.

논바이너리 Non-binary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이분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남성'과 '여성'에 국한하지 않고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정체화하는 사람을 말한다.

시스젠더 Cisgender

성별 정체성이 자신의 지정 성별과 일치하는 사람이다.

젠더 비순응 Gender Non-conforming

성별이분법에 기반하여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사회적 기대나 고정관념에 따르지 않는 것을 말한다.

젠더표현 Gender Expression

성별표현. 외모나 행동, 복장 등을 통해 자신의 성별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개개인의 방식. 자신을 여성으로 인식해도 사회에서 남성적으로 여겨지는 표현을 하는 경우처럼, 젠더 표현과 성별 정체성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트랜지션 Transition

‘다른 상태 · 조건으로의 이행’이라는 의미로, 성소수자와 연관되어 사용될 때에는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별 정체성에 맞는 성별로 살아가기 위해 전환하는 과정을 뜻한다. 좁게는 호르몬 치료나 수술 등의 의료적 조치와 법적 성별 정정을 가리키며, 넓게는 성별 정체성에 맞는 성별 표현과 성역할의 변화 과정까지 포괄한다.

커밍아웃 Coming Out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 성소수자의 가족과 친구들도 지지자로서 커밍아웃할 수 있다. 커밍아웃의 정도는 매우 다양한데, 어떤 이들은 친구들에게만, 어떤 이들은 공개적으로 모두에게 커밍아웃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신에게만 커밍아웃한다. 커밍아웃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모두가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웃팅 Outing

타인이 성소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을 공개하는 행위.

앨라이 Allies

원래 ‘협력자’라는 의미로, 성소수자와 연관되어 사용될 때에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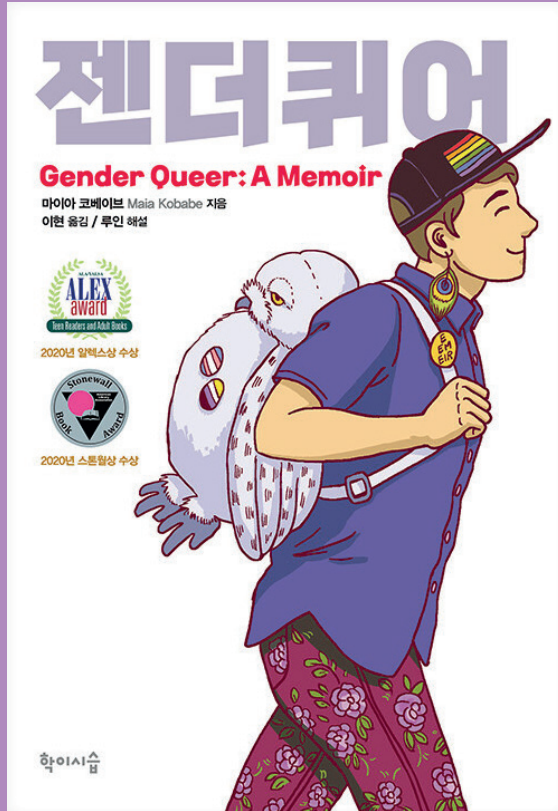


- 2p 문화다양성 추천 만화 시리즈를 기획하며
- 4p 성소수자(LGBTQIA+) 관련 용어
- 10p 젠더퀴어 | 마이아 코베이브 지음 | 이현 옮김 | 학이시습 | 2023
- 12p 니키 | 멀린 스코그베리 노드 지음 | 전은선 옮김 | 우리나라비 | 2021
- 14p 톰보이 | 리즈 프린스 지음 | 윤영 옮김 | 윌컴퍼니 | 2018
- 16p 나단이라고 불러줘 | 카트린 카스트로/랑탕 쥐시옹 지음 | 이나래 옮김 | 상어 | 2020
- 18p 내 이름은 사이언, 나는 트랜스젠더입니다 | 사이언 지음 | 꿈꾼문고 | 2020
- 내 이름은 말랑, 나는 트랜스젠더 입니다 | 말랑 지음 | 꿈꾼문고 | 2020
- 20p 저는 왼손잡이도AB형도아니지만 | 키라타치 하지메 지음 | 고망쥬 옮김 | 동양북스 | 2021
- 22p 당신 엄마 맞아? 웃기는 연극 | 앨리스 백델 지음 | 송삼별 옮김 | 도서출판 움직씨 | 2019
- 24p 레생보 | 피랑윤 지음 | 도서출판 움직씨 | 2022
- 26p 모두에게 완자가 | 완자 지음 | 재미주의 | 2013
- 28p 스피닝 | 킬리 윌든 지음 | 박다솜 옮김 | 창비 | 2020
- 30p 편 흠 : 가족 희비극 | 앨리스 백델 지음 | 이현 옮김 | 도서출판 움직씨 | 2017

- 32p 햇살을 타고 | 탈리 윌튼 지음 | 사라김 옮김 | 이숲 | 2020
- 34p 시마나미 황혼 | 카타타니 유키 지음 | 심이슬 옮김 | 삼양출판사 | 2017
- 36p 아우의 남편 | 타카메 겐고로 지음 | 김봄 옮김 | 길찾기 | 2016
- 38p 어제 뭐 먹었어? | 요시나가 후미 지음 | 노미영 옮김 | 삼양출판사 | 2008
- 40p 요나단의 목소리 | 정해나 지음 | 다산북스 | 2020
- 42p 우리 아들은 아마도 게이 | 오쿠라 지음 | 김아미 옮김 | 소이미디어 | 2021
- 44p 플레이어 | 마이크 큐라토 지음 | 조고은 옮김 | F(에프) | 2022
- 46p 하트스토퍼 | 앨리스 오스먼 지음 | 박산호 옮김 | 위즈덤하우스 | 2021
- 48p 환절기 | 이동은 글, 정이용 그림 | 이숲 | 2016
- 50p 프로젝트 후기
- 54p 홈통만화연구실 및 필진 소개

※ 추천 만화 및 리뷰는 주인공의 정체성에 따라 '젠더퀴어-논바이너리-트랜스젠더-에이섹슈얼-레즈비언-게이'의 순서대로 게재했습니다.

“내게는 이 식물의 정체를 식별할 언어가 없었다.”



© 2023, 마이아 코베이브 지음, 이현 옮김, 학이시습

#젠더퀴어 #논바이너리 #에이섹슈얼 #젠더정체성 #성별불쾌감 #나의_인칭대명사는_e

〈젠더퀴어〉는 저자인 마이아 코베이브의 치열한 자아 찾기의 과정이 그려져 있다. 그 과정에서 특별함이 있다면 논바이너리이자 에이섹슈얼로 정체화한 저자의 고민이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최근 젠더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관한 당사자성을 담아낸 서적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젠더

퀴어> 역시 당사자성을 드러내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오랜 고민과 치열한 내외부의 투쟁을 통해 이루어진 결과물-젠더퀴어-인지를 꽤 설득력 있게 전달한다.

마이아는 사회적 성별을 강요하는 일에 관심 없는 가정환경에서 자란 덕분에 어릴 때 자신의 젠더정체성을 규정당하거나 강요당해 본 경험이 없었다. 이런 마이아가 자신의 젠더정체성을 고민하게 된 시작은 초등학교에서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부터였다. 즉 사회화 과정이 시작되자 마이아는 바로 남녀 이분법의 젠더 규정 속에 놓이게 된다는 점은 의미심장하다. 이는 그동안 어디에도 규정되지 않았던 마이아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마이아에게는 사회가 규정해 둔 그(he)/그녀(she)라는 이분법으로는 도무지 자신을 설명할 언어가 없었다. 어릴 때부터 중성성에 매료된 마이아는 그의 내부가 남성성과 여성성이 모두 내재해 있다고 느꼈다. 15살 때 쓴 그의 일기에는 “여자이고 싶지 않다. 남자이고 싶지도 않다. 그저 나 자신이고 싶다”고 적었다. 마이아는 이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독서했고, 생물학 이론을 찾아보거나, 주변의 많은 이들과 대화하고, 또 그들을 조사했다. 이 과정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마이아의 노력이 그 누구보다 치열했고, 진지했음을 말해준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한 끝에 마침내 그는 자신을 규정할 인칭대명사로 ‘그(e)’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스스로를 ‘젠더퀴어’로 규정했으며, 자신의 성적 지향이 ‘에이섹슈얼(무성애자)’임을 정체화했다.

<젠더퀴어>는 248쪽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는 놀라운 성취다. 저자가 그동안 성별 불일치로 인해 겪어온 감정과 고통, 사회와의 불일치로 인해 감내해야만 했던 시간과 망설임, 그 안에서 더는 감당하지 않겠다는 결심과 용기, 그리고 자신을 젠더퀴어이자 에이섹슈얼로 정체화하는 과정에 대한 서술에 이르기까지의 서사가 불과 248쪽에 담길 수 있다는 점은 놀랍다. 게다가 이 짧은 서사 안에 젠더퀴어와 관련된 학술적 정보들도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 또한 경이롭다. 그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만화그리기 수업에서 했던 “만화에 서는 공간이 시간을 지배합니다”라는 가르침을 이 책이 실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젠더퀴어>의 결말은 학생들에게 만화를 가르치는 마이아가 자신의 젠더정체성을 커밍아웃하는 일의 고민으로 마무리된다. 이 마지막 장면은 그가 지역도서관에서 학생들에게 만화를 가르치는 일처럼 정체성과 성적지향에 관한 강의를 가르치는 일이 같은 무게일 순 없을까라는 물음을 던져준다. 그렇다면 어딘가 있을 ‘마이아’들이 겪을 혼란과 고통이 조금은 덜할 수 있지 않을까. 여전히 성별이분법이 공고한 사회에서 혼란스러워할 ‘마이아’들과, 그들과 함께 숨 쉬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젠더퀴어>는 수많은 타자의 존재를 확인케 한다. | 서은영 |

“비밀을 말해버려서 속이 다 시원하다. 난 어쨌든 이성을 좋아하진 않는 것 같다.
그래도 로가 어떤지는 모르겠다. 로가 여자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겠다. 그걸 알아봐야겠다.”



© 2021, 멀린 스코그베리 노드 지음, 전은선 옮김, 우리나비

#젠더퀴어 #논바이너리 #성정체성 #편견 #성장통 #체질량지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타인에게 “너를 위한 일”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너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맥락이 여기에 속한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정말로 “너를 위한 일”이 당신을 위한 일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 이런 말의 의도가 빛나가는 경우도 많으니 그렇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다고 치자. 진석은 애인에게 사랑한다며 값비싼 명품 가방을 선물한다. 품격 있는 레스토랑에 데려가기 위해 노력하고, 값비싼 외제 차로 자신의 경제력을 뽐낸다. 그런데 은하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 은하가 원하는 것은 그곳이 어디든 편히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이다. 화려하지 않지만 서로의 입장과 처지를 교감하는 것이 은하가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은하를 위해 노력하는 진석의 모습은 사실상 무의미한 행위에 불과하다. 선의가 명확히 어긋나 버렸기 때문이다. 멀리 스코그베리 노드의 그래픽 노블 〈니키〉 또한 이런 어긋남에 대해 다룬다.

니키는 평범한 학생이다. 하지만 또래 친구들보다 체구가 크다. 무엇보다도 여성(?)이었기 때문에 몸집이 크다는 사회적 현실은 니키를 힘들게 한다. 학교에서 측정하는 몸무게가 두려웠던 것도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잣대와 자신의 외모가 현격히 차이가 나니 '나'를 사랑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이런 힘들음을 그 누구보다도 함께 공유해 주어야 할 가족이 오히려 더 니키를 곤란하게 한다. 니키의 동생은 습관처럼 덩치가 크다는 말을 내뱉고, 엄마는 니키를 위한 것이라며 식단 조절의 필요성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런 상황에서 니키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주눅 든 채 학창 시절을 보낼 뿐이다. 『니키』의 첫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고백("여름 방학의 마지막 날이다. 학교에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난 여기 연꽃들 사이에 누워서 연꽃 가지들이 나를 움아매어 바닥으로 조금씩 조금씩 끌어당겼으면 좋겠다. 그러면 더 이상은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겠지.")의 형식은 이러한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하지만 니키에게 구세주 같은 인물이 등장한다. 당당하고 믿음직한 채식주의자 '로'가 그 인물이다. 로 또한 니키처럼 체구가 적지 않다. 하지만 로는 '나'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있다. 니키는 그런 '로'를 보면서 진정한 자신을 찾기 시작한다. 이 작품은 그 과정을 담는다. 니키는 체구가 큰 것이 '병'이라는 사회적 잣대로부터 체구가 큰 것은 '병'이 아닌 다름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중요한 것은 이 텍스트가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 짓는 사회적 시선에 대해서도 반문한다는 점이다. 니키와 로는 여성이지만 여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해진 사회적 틀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둘은 서로 의지하며 부조리한 시선으로부터 용기 내기 시작한다. 그러니 이 두 인물이 사랑에 빠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잣대로부터 '나'를 지키려는 독자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 문종필 |

“대체로 제 인생은 상당히 괜찮았어요.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리고 ‘젠더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 2018, 리즈 프린스 지음, 윤영 옮김, 윌컴퍼니

#논바이너리 #툼보이 #성장기 #여자다움 #자신만의방식 #나_자신을_제대로_정의하기

톰보이(tomboy)라 하면 ‘여성스럽지 않은 행동 / 남자애들이나 할 법한 행동을 하는 미혼 여성’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사전에서는 이런 해설의 결과를 한 낱말로 정리해 ‘말괄량이’라고 규정하는데, ‘너의 하찮은 말에 미소나 지을 바엔 그래 난 X나 톰보이야’라는 한국의 아이돌 ‘(여자)아이들’의 전복적이기까지 한 노래에서조차 화자는 자기 앞에서 짜증 내는 보이(boy)를 앞에 둔 톰보이다. 사실 이러한 정의에 그다지 별 생각이 없었다. 대충, 옷을 남자처럼 입는 여자애들 정도? 과거에 그 명칭을 단 옷 브랜드의 구색이 다 그러했듯 말이다.

그런데 <톰보이>의 작가 리즈 프린스는 “나면서부터 톰보이”였다고 스스로를 소개하면서, 본인의 성장기를 통해 독자에게 묻는다. ‘남자에 같은 행동’이란 말 또한 알고 보면 상당히 주관적이다. 어떤 사람들은 여자 운동선수들을 톰보이라고 하는데, 머리를 짧게 자른 여자는 또 어때며, 청바지 입는 걸 좋아하는 여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여자는 또 어때한가? 무엇이 여자아이를 여자아리로 만드는가? 작가가이자 화자인 리즈에게 톰보이는 옷차림이나 운동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제대로 정의하는 표현이고, 지켜야 할 방식을 나타내는 말이다.

원피스를 비롯해 여성스럽다고 지칭되는 옷차림을 거부하고 이웃 소녀들처럼 공주 놀이를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남자애들 속에 속하지 않은 어느 중간 지점에 어정쩡하게 서 있던 리즈는 어느 순간 젠더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너무나 확고한 고정관념 속에 사는 아이들에게 괴롭힘과 따돌림을 당했다. 자신을 존중해 주는 사람과 공간을 만나기 전까지 리즈가 겪었던 일련의 폭력은 비교적 귀여운 그림체 저편에서조차 악의 넘치는 표정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참혹하고, 굴욕적이다.

조금만 ‘나’ 또는 ‘우리’와 다르면 얼마든지 마구 대할 만한의 준비를 하는 사람들 속에서 치이던 리즈는 본인 또한 조금은 다른 나를 인지하면서도 막상 사회적인 규범을 받아들이고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리하여 단지 여자이기 싫어서 남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방식으로 여성이 되고 싶다’는 마음으로 나아간다. “여자가 된다”란 말에 여전히 차별적, 성희롱적 함의가 횡행하는 지금, 소녀 시절의 여정을 거쳐 자신의 결론에 다다른 한 톰보이의 모습은 적잖은 울림을 준다. | 서찬휘 |

“난, 남자의 보지가 있지. 정신적 자지도 있고”
“별들도…성별이 있나?”



© 2020, 카트린 카스트로/강탕 쥐시옹 지음, 이나래 옮김, 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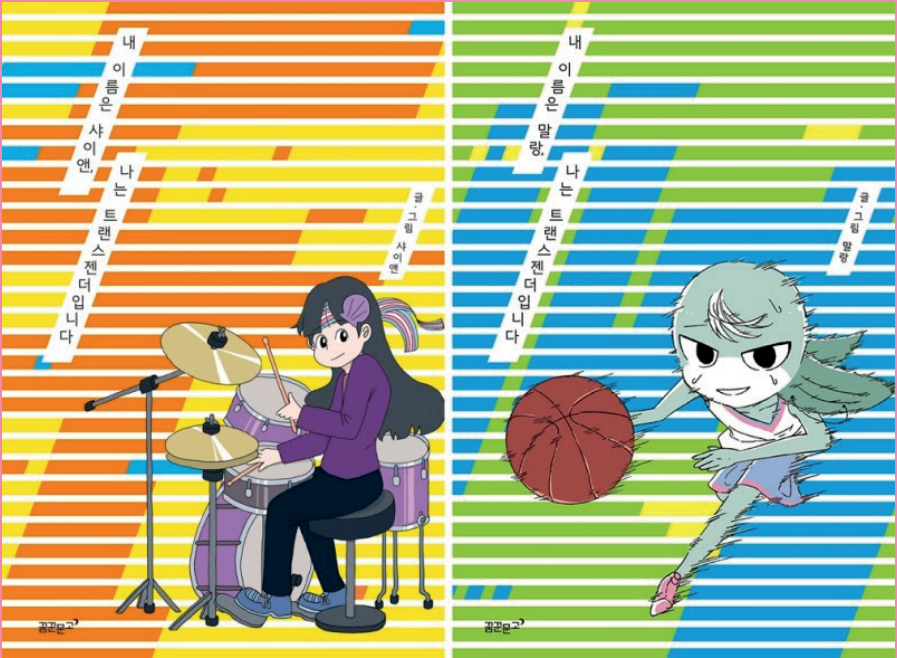
#FTM #10대청소년 #트래지션 #성별불쾌감 #성별재지정 #당신의_젠더는_무엇?

〈나단이라고 불러줘〉는 한 인간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사회와 투쟁하는 과정을 그린다. 주인공 릴라는 여성(지정성별)으로 태어났지만, 자신을 여성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 그는 가족, 학교, 사회가 정해놓은 젠더규범을 거부하며 자신은 ‘나단’(자신이 생각하는 정체체성인 남성)이라며 끊임없이 외치지만, 주변인들은 릴라가 레즈비언이거나 사춘기의 반항을 부리는 것쯤으로 여긴다. 그러나 나단은 자신의 성별을 남성이라고 말하는데 단호하다. 그는 고민할 여지도 없이 자신의 정체체성이 남성임이 확실하다고 힘주어 말한다. 그런데도 자신의 성별을 자신이 지정할 수 없는 사회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 작품에서 가슴은 상징적이다. 나단의 남성 정체성이 거부될수록 나단은 성별 불쾌감을 겪게 되고, 급기야 자기 몸을 혐오하기에 이른다. 긴 머리, 볼록 나온 가슴, 털이 자라지 않는 매끈한 피부는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사춘기가 되자 더욱 혐오스러운 몸이 된다. 긴 머리는 자르면 되지만, 여성성을 상징하는 가슴은 지정성별과 성적 정체성의 불일치로 인한 나단의 비관을 극한으로 치닫게 한다. 나단이 가슴을 쥐어뜯는 자해장면은 이후 진행된 호르몬 치료와 수술을 통해 영광의 자국으로 남는다. 이 장면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학대가 아니라 성별을 지정해 놓은 사회에 대한 거부이자 저항의 의미다.

성별 재지정, 즉 FTM트래지션(Female to Male) 과정을 겪은 후 나단은 그의 말처럼 “제가 마침내 제가” 되었다. 나단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난, 남자의 보지가 있지. 정신적 자지도 있고.”라고 말한다. 그는 다른 남자 친구들처럼 마초적이지도 않으며, 여성에 대한 이해와 배려도 높다. 나단은 스스로를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 삶이 구축해 놓은 젠더규범에 따른 행동양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체성인 ‘나단’을 탄생시켰다. 마지막 장에서 나단은 “별들도… 성별이 있나?”고 묻는다. 당연히, ‘없다’. 그런데 왜 유독 인간들은 인간에게 성별과 성차라는 지독한 딱지를 붙여 놓았는지, 이제는 질문해야 할 때이다. | 서은영 |

“남자분이세요, 여자분이세요?”



© 2020, 말랑 | 사이언 지음, 꿈꾼문고

#트랜스젠더 #트랜스여성 #트랜스남성 #젠더디스토피아 #정상성과비정상성 #트랜지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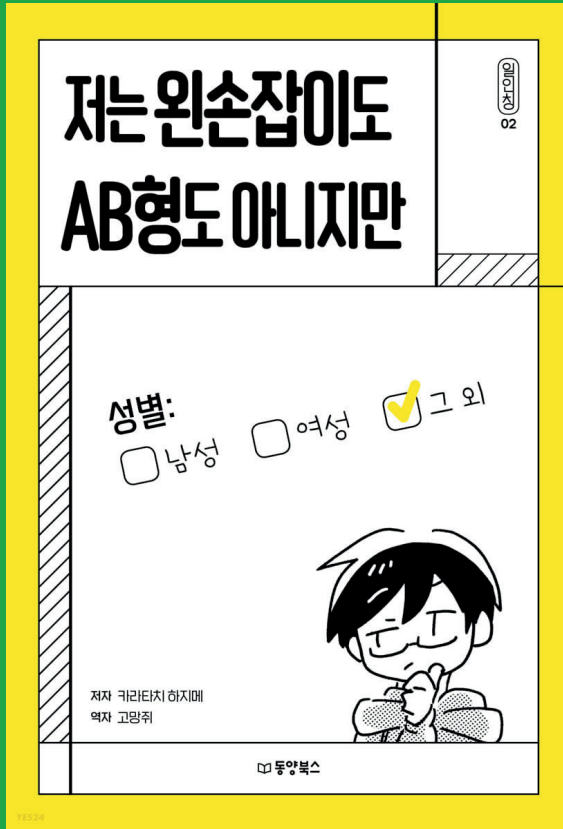
지정 성별(태어날 때 지정된 성별)과 자신의 성별 정체성이 맞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트랜스젠더, 기존의 이분법적 젠더 기준 너머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트랜스 여성과 트랜스 남성은 어느 정도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지만, 트랜스젠더 속에는 논바이너리, 젠더퀴어, 안드로진 등 보다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른다. 이러한 트랜스젠더에 대해 이해를 높여주는 두 권의 만화책이 있다. <내 이름은 말랑, 나는 트랜스젠더입니다>, <내 이름은 사이언, 나는 트랜스젠더입니다>. 이 책들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나 대중적인 안내서가 거의 없는 한국 사회 속에서 트랜스젠더 당사자들이 자신과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 이야기하는 소중한 작품이다.

말랑 작가는 트랜스 남성, 사이언 작가는 트랜스 여성이다. 두 작가가 쓴 작품 속에는 트랜스젠더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트랜스젠더들이 일상에 겪는 다사다난한 어려움, 젠더 디스포리아(젠더 위화감/불쾌감)에 대한 대처 과정,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기 위한 사회적, 의료적, 법적 트랜지션의 과정 등 트랜스젠더에 대한 이야기들이 촘촘하게 들어있다. 이 책들은 비(非)트랜스젠더들에게는 트랜스젠더의 정체성과 삶에 대한 이해를 돕고, 트랜스젠더들에게는 동료로서의 이해와 안심, 현실적인 삶의 팁을 얻을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북이다. 또한 작품의 제목 <내 이름은 OOO, 나는 트랜스젠더입니다>에서도 드러나듯, 시스젠더 중심의 사회에 잘 보이지 않았던 트랜스젠더의 삶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사회적 커밍아웃’이기도 하다.

몇 년 전 고 변희수 하사를 비롯하여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가시화했던 트랜스젠더분들이 차례로 세상을 떠났다. 이들의 죽음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몰이해와 사회적 편견이 만들어 낸 사회적 죽음이었다. 세상엔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사회적 제도와 법, 인식은 다양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살아가는 것을 아직 수용하지 않는다. 다양성 사회의 시작은 구성원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우리의 동료 구성원을 이해하기 위해 이 책은 누구나 읽어야 할 책이다.

작가들은 작품을 통해 트랜스젠더들에게 스스로를 사랑하고 행복해지라고 이야기한다. 사이언 작가는 작품의 말미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좋아해 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혁명’이라고까지 이야기한다. 스스로 사랑하고 행복해지는 내적 혁명이 승리하는 날을 바라며 이 책들을 추천한다. | 김성진 |

“저는 여성이 아닙니다. 하지만 남성이 되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 2021, 카라타치 하지메 지음, 고망취 옮김, 동양복스

#트랜스젠더 #에이섹슈얼 #무성애자 #성별모라토orium #여성_아님 #남성이_되고픈_것도_아님

나를 규정하는 데에 언어를 별도로 동원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란 얼마나 안온하고 평화로웠을까? 그러나 세상에는 그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 작품, <저는 왼손잡이도 AB형도 아니지만>은 생물학적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스스로 여성이 아니라 생각하는 저자 카라타치 하지메가 본인이 겪어 왔던 자기 이해와 규정 과정을 그려낸 자전적 실록 만화다.

작가는 본인이 여성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그렇다고 근육과 남성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가 되어서 누군가와 성행위를 하고 싶은 것 또한 아니었다. 작가는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찾고 규정하는 과정을, SNS에서 받았던 반응이나 본인의 과거 기억과 경험을 통해 보여준다. 비교적 가벼운 그림체로 묵직하지 않게 그려내고 있지만, 그런데도 이 작품에 울림이 있는 까닭은 남 또는 사회가 정해준 규정에서 해매기보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고자 하는 과정의 좌충우돌을 문자 그대로 가감 없이 담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어디선가 이 화두의 사춘기를 겪고 있을 어린 친구들에게 경험에 근거한 공감과 함께 진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남기는 대목에서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그리고 레즈비언과 게이와는 달리 그나마 이해는커녕 인지조차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쪽의- 성소수자들에게 분명한 위로가 되리라 생각한다.

이 작품의 한국어판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름 아닌 번안 제목이다. 원래 제목은 <나는 성별 모라토리엄 (ぼくは性別モラトリアム)>이다. 한국어판 제목에 담긴 ‘왼손잡이’와 ‘AB형’은 분명 작품 속에 나와 있는 키워드이고, 일본 내에서 LGBTQIA+의 비율이 딱 저 둘 수준만큼 자리하고 있음을 말하는 데 쓰이기도 했지만 그림보다 글씨의 비중이 더 높은 한국어판 표지를 유심히 보기 전에는 그다지 직관적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혹 몰라 첨언해 둔다. 성소수자에도 수많은 구분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인지가 닿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제목의 장벽을 넘어 이 작품의 내용을 한 번 접해보길 권한다. 그림은 비교적 가볍지만, 무언가에 진입해 들어가는 데에 도움을 주는 데에는 아주 적합한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서찬휘 |

“내 어머니에게서 받지 못한 것이 있다. 결핍과 간극과 공백이 있다. 하지만 그 대신 어머니는 내게 다른 것을 주셨다. 아마도, 훨씬 더 값진 것. 그녀는 내게 출구를 주었다.”

ARE YOU MY MOTHER? A Comic Drama
당신 엄마 맞아? 웃기는 연극

엘리스 백델 글그림
 송섬별 옮김

DOOR & DOOR PUBLISHER

위니컷은 대장관계이론의 개척자 중 한 사람이다.

프로이트는 개인을 포함한 존재, 환경적이며 않는적인 욕망을 추적하고자 하는 에고(ego)로 보았다.

반면 위니컷은 '이기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아기를 보여 준다는 것은 아이를 분할하는 사람 역시 보여 주는 것이다!

위니컷은 엄마와 아이의 관계에서 사랑, 인식 분석가와 환자 사이에 일어나는 상호 작용의 인식 체계에 집중했다.

therapists

Jocelyn A* B C D Carol

25 age 30 35 40 45 50

그는 환자를 분석한 경험을 활용해 신생아의 신비로운 정신적 삶을 이해했다. 또한 위니컷이 사랑과 관계 맺는 방식은 불을 달고 보면 외부 세계 전체와 관계 맺는 방식까지 신생아 때 결정된다는 것을 밝히었다.

romantic attachments

Eloise Diane Amy Holly

Donna X Z

하지만 위니컷은 개인이 발달이 앞에서 '가'하는 말을 처음 쓰는 순간부터 노년으로 사망하는 순간까지라는 열정적인 믿음을 또한 갖고 있었다.

© 2019, 엘리스 백델 지음, 송섬별 옮김, 도서출판 움직씨

#레즈비언 #성정체성 #성소수자 #자아찾기 #출구 #프로이트 #응

사회적 관성은 흐름에 귀속되지 않는 존재를 낮은 대상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당사자들은 괴롭다.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깥에 있는 존재들은 늘 위태롭고 흔들린다. 엘리슨 벡델의 <당신 엄마 맞아? 웃기는 연극> 또한 이런 과정에 놓인 한 존재의 이야기를 다룬다. 작가 특유의 자기 고백적인 형식을 무장한 채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무거운 이야기를 묵직하게 끌고 간다.

그런데 이 과정이 전문적이고 분석적이고 난해하다. 난해하다는 말이 과장일 수 있으나 정신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다면 편하게 접근하기는 힘들다. 저자는 프로이트나 융과 같은 정신분석학자들의 이론을 활용해 '나'를 분석하고 이 과정을 담아 놓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스타일이 누군가에게는 만족할 수 있는 깊이를 제공하겠지만, 일부의 독자들에게는 진입을 어렵게 만든다. 더 나아가 분석가들과 함께 나누었던 은밀한 시간도 순서대로 나열하니 흥미로울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어리둥절할 수 있다. 따라서 독자들은 속도를 늦추고 천천히 작가의 고백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만화의 주인공인 '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 내가 무슨 이유로 힘들어하는지, 엄마와의 부딪침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상세히 적는다. 우울증 치료를 받았던 경험부터 엄마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까지 섬세한 연출로 담는다. 엘리슨 벡델의 <편 흡>을 흥미롭게 읽은 독자라면 이 텍스트가 전하는 마력을 어렵지 않게 공감할 수 있다. 엘리슨 벡델은 본문에서 "나는 이야기를 지어낼 수 없다. 아니, 정확하게는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만을 지을 수 있다."라고 고백한 바 있다. 독자들은 이런 작가의 의도를 탐닉하면서 조금은 긴장한 채 이 텍스트를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 만화를 편하게 읽을 수 있는 텍스트라며 가볍게 생각한 독자들은 페이지를 빠르게 넘기지 못해 불평할 수 있으나, 거짓이 없는 진솔한 고백을 탐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고를 감내해야 한다. 그럴 때 화자와 엄마가 어떤 방식으로 서로를 힘겨워하고 응원하는지 궁극에는 화해하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성정체성과 성소수자에 대한 사연이 스며 있다.

아무리 '엄마'라고 해도 사회적 통념이나 잣대로부터 자유롭기는 힘들다. 엘리슨 벡델의 엄마도 마찬가지다. 딸이 성소수자인 사실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딸이 <편 흡>이라는 명작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정 이야기가 외부로 알려질까 봐 곤혹스러워한다. 하지만 엄마는 엄마다. 그런 딸을 엄마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해하려고 애쓴다. 이 텍스트는 이 과정을 '메타북(metabook)' 형태로 담는다. 무언인가 깊이 탐닉하고 싶은 독자와 진지한 고백을 통해 부조리한 잣대를 수정하고 싶은 독자들에게 이 텍스트를 추천한다. | 문종필 |

“여자 둘이 부부입니다.”



© 2022, 파랑운 지음, 도서출판 움직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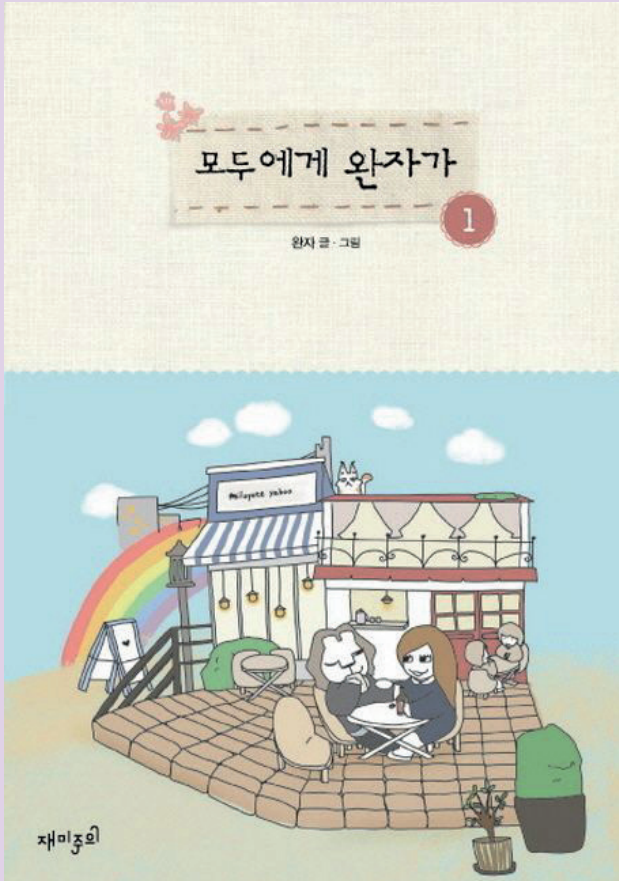
#레즈비언 #동성부부 #가족구성권 #배우자 #성소수자일상 #우리라서다행이야

사랑은 할 수 있지만, 가족은 될 수 없어. <레생보>의 주인공 파랑과 까망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다. 자신의 머리칼에서 상대방의 냄새를 느끼고 한 이불을 덮고 살아가는 10년 차 커플. 파랑과 까망은 서로의 세밀한 감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세상의 흔한 연애를 한다.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오래오래 함께 살고 싶은 커플이지만, 결혼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파랑과 까망은 모두 여성이기 때문이다. <레생보>는 '레즈비언 생활 보고서'의 줄임말이다. <레생보>는 파랑윤 작가가 배우자 까망의 지원을 받아 레즈비언 커플의 일상 만화를 인스타그램에 4년 동안 연재한 작품으로, 2022년에 이를 묶어 도서출판 움직씨에서 출판했다. 파랑과 까망의 이야기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상의 연애 이야기이지만, 사회와 만나는 일상은 고민과 갈등의 연속이다. <레생보>에는 파랑과 까망의 사랑, 커밍아웃, 아웃팅, 일상 속 혐오와 편견, 주변의 응원과 지지까지 성소수자 커플의 삶을 구성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따뜻한 그림체로 담겨있다.

파랑과 까망은 모두에게 축하받고 격려받는 결혼을 꿈꾼다. 하지만 현실은 파트너가 급하게 아파서 병원에 함께 가더라도 보호자가 될 수 없는 법적인 남, 동거인일 뿐이다. 누구보다도 가까운 가족이지만 힘든 상황에서도 즐거운 상황에서도 법적 가족이 될 수는 없다. 이들에게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는 나라의 이야기는 다른 세계의 판타지일 뿐이다. 이러한 문제는 파랑-까망과 같은 성소수자 커플뿐 아니라 상호 돌봄과 연대감으로 연결된 다양한 비혼/동거 가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문제다. 현실적인 가족의 형태는 다양해져 가고 있지만, 관습적, 법적 가족의 범위는 너무 진부하여, 진화하고 있는 가족의 관계를 다 담아내지 못한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을 포함하는 보다 '보편적인 가족구성권'에 대한 시민사회의 논의가 사회적으로 확장되기를 바란다.

<레생보>는 이성애자에게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공기처럼 숨 쉬듯 자연스러운 일상의 연애가 성소수자들에게는 때론 고민으로, 넘어야 할 장벽으로, 결의를 가진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SNS를 통해 자신들의 일상을 드러내는 이 작품은 파랑과 까망에게 평범하고도 비범한 사랑의 기록이기도 하고, 사회를 향한 메시지를 담은 행동이기도 하다. 사랑과 연애가 더 이상 행동이 되지 않는 날을 바라며, 누구나의 평범한 사랑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작품을 추천한다. | 김성진 |

“한 공간에 산다.”



© 2013, 완자 지음, 재미주의 | 전 2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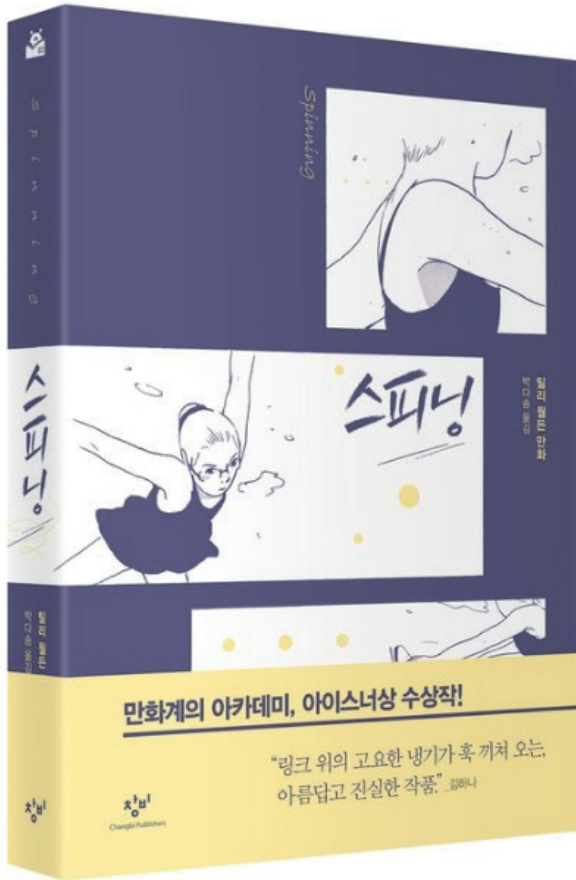
#레즈비언 #동성애 #공존 #보통의연애 #젠더규범 #젠더수행성

외눈박이 마을에서 두눈박이는 귀어(이상)하다.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이분법 안에 갇혀 있었다. 성별도 마찬가지다. 생물학적 지정성별에 따른 남성과 여성 이외의 존재들은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이들이었다. 성별의 이분법적 구분은 자연스레 헤테로섹슈얼(이성에게 성적/감정적으로 끌림)이 정상이라고 간주했다. 그런 연유로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성적체성을 고민한 적도, 성적 지향을 결정할 만한 시간을 가진 적이 없다. 이것을 고민한 자와 고민하지 않은 자 중에, 우리는 누가 더 귀어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모두에게 완자가〉는 ‘귀어한’(사실은 사회가 귀어하다고 간주한) 이들이 두눈박이 사회의 사람들에게 말을 건넨다. 완자는 한 공간 안에 다양한 성적체성과 성적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노라고, 말한다. 완자는 작품 초반부터 자신들은 동성 커플임을 고백한다. 독자 중에는 이 고백에 혐오로 화답하는 이들도 있었다. 일부 독자는 혐오까지는 아니더라도 동성애와 커플을 처음 접하는 당혹감과 거부감을 고백하기도 했다. 호의적이지 않은 독자들의 반응에도 완자는 분노하거나 이해를 강요하지 않는다. 완자는 오히려 자신들의 사랑 역시 이성애와 다르지 않고, 사랑의 성적지향이 다른 것 외에는 구분할 수 없을 만큼 평범하다고 말한다. 그들의 언어는 특별하지도, 유난하지도 않다. 작품을 읽다 보면 이들이 동성 커플임은 어느새 잊어버리고, 완자와 야부라는 커플이 알콩달콩 ‘염장 지르는’ 커플툰을 들여다보는 재미에 빠져들게 된다. 완자는 사람들이 염장툰, 커플툰을 말하듯이 “자신들의 일상도 모두와 같은 무게의 염장툰”이라고 말한다.

〈모두에게 완자가〉는 다양한 연애의 형태를 상상케 한다. 그리고 이들은 젠더 규범에 얽매어 있지 않다. 간혹 독자들은 완자를 여성으로, 야부를 남성으로 상상한다. 그러다 문득, 치마를 입은 야부, 여자 화장실을 이용하는 야부, 화장품에 익숙한 야부를 마주하면, 이성애 규범에 익숙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 작품을 통해 사회가 정해놓은 성별 규범으로 옳아왔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남성/여성이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정형화된 규범의 연애와 행동양식이 아니라 특정한 형식과 성별에 따른 양식 없는 다양성의 세계로 확장 가능한 계기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2023년, 한 공간에 공존하는 다양한 삶의 형태들을 더 이상 모르는 체하지 말고, 이제는 모두가 완자에게 답해야 할 때이다. | 서은영 |

“웃자! 흔들자! 사랑해!”



© 2020, 톨리 윌드 지음, 박다솜 옮김, 창비

#레즈비언 #스케이트 #그래픽노블 #성장만화 #트리플악셀은이렇게

동계올림픽 종목 중 속도가 아닌 표현의 아름다움을 경쟁하는 종목 중 하나가 피겨 스케이팅이다. 피겨 스케이팅은 음악에 맞춰 빙판 위에서 스케이팅 기술을 선보이는 종목이다. 은반 위 선수들의 우아한 동작은 피나는 노력과 끊임없는 연습의 산물이다. 한 소녀가 스케이트를 타면서 겪는 청소년기의 고민과 순수한 사랑을 만화 <스피닝>에서 엿볼 수 있다. <스피닝>은 12년 동안 스케이팅 선수로 살았던 릴리 윌든의 자전적 이야기이다. 이 작품은 2018년에 미국 만화계의 가장 권위 있는 상인 아이스너상을 받았다.

주인공 릴리는 피겨 스케이팅과 싱크로나이즈드 스케이팅 선수다. 남들보다 스케이트를 조금 잘 타는 선수이지만 그렇다고 아주 뛰어난 에이스는 아니다.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학교에서는 따돌림을 당하고, 함께 스케이트를 타는 동료들과는 잘 어울리지도 못한다. 매일 이어지는 스케이팅 연습이 지겹지만 어떻게 벗어나야 할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간다.

<스피닝>에서 릴리는 두 가지 벽을 만난다. 첫 번째 벽은 자신이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주변에 알리는 것이다. 릴리는 남성이 아닌 여성을 사랑한다. 어린 여성 동성애자에게 첫사랑은 짜릿함이나 해방감보다 두려움이 먼저다. 또 다른 벽은 스케이트를 그만두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학생 시절 스케이트는 릴리의 전부였다. 그러나 스케이팅이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독자는 만화를 읽으며 릴리의 앞에 놓인 커다란 벽을 넘으며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스피닝>은 스케이팅을 소재로 하지만 스케이팅에 관한 만화는 아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신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한 소녀의 성장담이다. 스케이팅 선수였던 경험을 토대로 악셀, 스파이럴, 러츠 등 각 장의 맨 앞에 스케이팅 기술을 소개하며 자신이 그 동작을 할 때 느꼈던 감정을 담았다. <스피닝>을 읽고 있다면 마치 옆에서 릴리 윌든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 너도 용기를 내서 네가 하고 싶은 것에 도전해 봐'라고 속삭이는 것 같다. 여러분도 릴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은가?
| 최기현 |

“어렸을 때, 정말로 난 여자가 되고 싶었다. 여자 옷을 입기도 했어.
저는 남자가 되고 싶었어요! 남자 옷도 입었죠. 기억하세요?”

FUN HOME A Family Tragicomic
편 흠 **가족 희비극**
 엘리스 백델 글그림
 이현 옮김

소문장
 SOON
 PUBLISHER

“진실을 알고 싶어.”
 뮤지컬 <편 흠>의 가족 이야기

토니 어워즈
 12개 부문 노미네이트
 5개 부문 수상
 작품상·음악상·극본상·
 남우주연상·연출상

COME TO THE FUN HOME!

FUN HOME

편 흠

© 2017, 엘리스 백델 지음, 이현 옮김, 도서출판 움직씨

#게이 #레즈비언 #성정체성 #추리 #미스터리 #고백 #영문학

엘리슨 백델의 <편 홍>은 상당히 심오하고 깊다. 심오하고 깊다는 말이 다소 낯설게 느껴진다면 귀납적이라고 말해도 좋다. 다시 말해, 이 만화는 자신의 아버지가 자살하게 된 이유를 추적한다. 그래서 추리소설과 흡사하다는 느낌도 받는다. 독자들은 '자살'이라는 단어로 인해 무엇인가 섬뜩한 것을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곤란하다. 브루스 백델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남성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운명을 품은 존재였기 때문이다. 동시대에는 이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지만, 이 만화의 주인공인 아버지가 살던 시절은 그렇지 않았다. 금기였고 혐오의 대상이었다. 그런 시대를 통과해야만 하니 그는 철저히 자신을 숨겨야 했다. 하지만 무엇인가를 숨기는 행위는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 정신분석의 가르침에 따르면 욕망은 억압하면 억압할수록 어떤 방식이든지 솟아오르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물론, 솟는다고 했을 때 날것 그대로 재현되기보다는 왜곡과 굴절의 과정을 거친다. 인간의 감정도 마찬가지다.

엘리슨 백델의 <편 홍>은 이처럼 짓눌린 흔적들을 추적하면서 서사를 이끌어간다. 하지만 이 과정이 독특하다. 가령, 엘리슨 백델은 아버지가 탐닉했던 책을 따라 읽으며 그가 고독하고 쓸쓸했던 시간을 어루만진다.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 카뮈의 <행복한 죽음>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등의 텍스트가 그것이다. 엘리슨 백델은 아버지가 이런 책들을 읽으며 여러 등장인물에 자신을 대입했다고 본다. 이런 과정을 독자들이 함께 따라 읽다 보면 전설적인 대가들의 문학은 물론, 예술가를 꿈꾸었던 아버지의 존재를 보다 심도 있게 만나게 된다. 무엇보다도 이런 과정은 엘리슨 백델의 정체성 찾기와도 만난다.

엘리슨 백델 또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많은 질문을 던졌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를 찾기 위해 '나'와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도서관에서 찾았다. 즉, 이 만화는 엘리슨 백델의 커밍아웃하는 과정이자, 딸이 아버지를 부끄럽지 않게 커밍아웃'시켜' 주는 만화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저자는 의도적으로 '각주'의 형식을 빌려 독자들이 빠르게 책을 넘기지 못하게 만든다. 이 과정 또한 정체성 찾기가 쉽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알려준다. 그러나 이 텍스트를 읽는 행위 자체가 힘겨워도 불평할 필요가 없다. 이 과정 자체를 버티는 것이 누군가를 이해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으니 그렇다. 이처럼 <편 홍>은 강력한 편견과 혐오에 맞서 싸운다. 진정한 자신을 찾고자 원하는 분들께 이 책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 문종필 |

“난 네 모든 것이 좋아, 그레이스. 내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 2020, 틸리 월든 지음, 사라 김 윽김, 이숲

#레즈비언 #논바이너리 #사랑성장모험 #SF #만화연출

유선형의 물고기 우주선이 반짝이는 우주를 유영하는 새로운 세계에는 수많은 쿼어와 여성들이 산다. 한 행성의 기숙사 창밖으로 아름다운 별빛이 끝없이 펼쳐지고, 오래된 숲과 폐허의 잔해들, 행성을 잇는 열차가

어울러 따뜻한 우주의 풍경을 만든다. 이는 작가 릴리 월튼이 2016년 가을부터 2017년 봄까지 매주 3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웹사이트(<https://www.ona-sunbeam.com/>)를 통해 발표한 작품 〈햇살을 타고〉에 묘사된 또 하나의 우주, 새로운 유토피아의 모습이다. 익숙하고도 새로운 세계를 창조한 릴리 월튼은 1996년 미국 텍사스주에서 태어난 MZ 세대, 커밍아웃한 레즈비언 작가이다.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스피닝(Spinning)〉으로 미국의 대표적인 만화상인 아이스너상을 받았고, 발표하는 작품마다 주목받고 있는, 이른바 떠오르는 샛별이다. 릴리 월튼은 기존의 SF가 백인 남성 중심의 서사인 것에 대한 실망과 지루함으로 자신이 살고 싶은 세계를 투영한 완전히 새로운 SF 작품을 그려보고 싶었다고 말하고 있다.

〈햇살을 타고〉에는 다양한 성적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지만 아무도 그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 퀴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세계, 퀴어의 삶과 사랑이 자연스럽게 당연한 세계라는 설정은 이 작품의 근간이 된다. 작가가 그린 이러한 이상적 유토피아 속에는 미아와 그레이스의 우주적 사랑과 모험, 한 인간의 고민과 성장, 그리고 다양한 인종, 문화, 세대의 갈등과 화합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기존의 SF 만화가 외부의 적들과의 전쟁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서사라면, 〈햇살을 타고〉는 외부를 조망했던 카메라의 시선을 조정하여 캐릭터의 내면을 비추는데 노력한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SF 퀴어 판타지 로맨스 성장물의 탄생이다.

또한 〈햇살을 타고〉는 웹을 통해 발표되었지만 출판만화 형식으로 그려졌다. 작품은 여전히 웹사이트에 무료로 공개되어 있다. 웹 발표 이후 출판이 되었는데, 지면을 통해 보는 작가의 만화 연출은 만화 연출의 교과서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다. 상황과 심리를 묘사하는 다양한 컷 분할, 리듬감 있는 연출, 특유의 화려한 컬러감은 감정적 몰입과 함께 시각적 쾌감을 선사한다. 특히 컬러를 통해 시공간과 등장 인물의 감정 변화를 보여주는 부분이 작품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데, 이러한 컬러감이 국내 출판의 과정에서 섬세하게 살아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그래도 출판만화로 보기를 권하는 이유는 모바일 기기로 보는 웹툰에서는 표현이 불가능한 출판만화만의 연출과 재미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햇살을 타고〉는 여성과 퀴어 유토피아를 기반으로, 여성의 사랑과 모험, 새로운 SF 세계관, 만화의 시각적, 형식적 재미를 골고루 제공해 주는 탄탄한 수작이다. 누구에게나 강추! | 김성진 |

“여름 방학이 시작되기 이틀 전 그날, 나는 아마 죽었다.”



© 2017, 카나타니 유키 지음, 심이슬 옮김, 삼양출판사 | 전 4권

#게이 #LGBTQIA+공동체 #호모포비아 #도시재생 #일상속혐오 #나나나

〈시마나미 황혼〉의 주인공인 타스쿠는 고등학교 1학년 남학생. 어느 날 친구들에게 게이 동영상을 본 것을 들리게 되어 자살을 생각한다. 그는 높은 마을의 벼랑 끝에 서 있다. 이 작품은 이렇게 극한의 심리상태에 몰린 한 소년의 모습으로부터 시작한다. 타스쿠는 서서히 자신의 성적체성을 깨달아 가고 있는 상태의

소년으로, 자신이 아웃팅 될지도 모른다는 상황이 되자 마음속에서 스스로에 대한 호모포비아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타스쿠는 많은 성소수자가 겪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기 시작한 초기의 내적 갈등을 잘 보여주는 주는 인물이다. 그는 사회적인 편견과 혐오란 외부에서뿐만이 아니라 성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할 때 자신의 내부에서도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시마나미 황혼>은 타스쿠뿐 아니라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성소수자들이 겪는 내적 갈등과 일상에서 가시처럼 숨어있는 편견, 혐오와 마주하는 사건들을 매우 현실적으로 그려낸다.

<시마나미 황혼>은 카마타니 유키 작가가 일본 히로시마현 오노미치시(尾道市)를 배경으로 다양한 성소수자의 고민과 삶, 일상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작품에는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에이섹슈얼, 퀘스처닝 등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인물들이 등장한다. 타스쿠는 ‘담화실’이라는 공간을 통해 이들을 만나는데, 처음에는 이들이 누구인지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른다. 내면을 알기 전까지는 남들과 별다르지 않은,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담화실’은 다양한 연령과 정체성을 가진 성소수자들이 느슨한 관계로 모인 쉼터이자 커뮤니티 공간이자 대피소 같은 곳이다. 타스쿠는 ‘담화실’을 통해 자신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동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부딪치고 갈등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간다. 작가는 ‘담화실’을 통해 성소수자들이 사회적 편견에서부터 벗어나 보통의 사람으로서 만나고 관계 맺을 수 있는 안전한 커뮤니티 공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시마나미 황혼>은 정체성 혼란, 일상 속 혐오, 다양한 정체성, 노인 퀴어 문제 등을 다루지만 작품 속 드러나는 갈등들을 해결하는 극적인 방식을 제안하지는 않는다. 다양한 성소수자들이 마주하는 일상의 곳곳에 숨은 사회적 편견들, 인물 내부의 감정적 균열들을 적절한 거리감 가진 카메라로 드러낼 뿐이다. 이러한 간격은 작품이 갖는 리얼리티를 더욱 효과적으로 강화시킨다. 카마타니 유키 작가는 스스로를 FtX(Female to X-gender) 에이섹슈얼’로 정체화하고 있는 작가이다. 작가의 이러한 정체성은 작품 속 ‘담화실’의 주인 ‘누구씨’로 환원된다. 제목에 쓰인 ‘황혼(誰を彼: 타소카레)’은 일본어 어원으로는 ‘당신은 누구?’라는 의미가 있다.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나? 원제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다. 작가가 던진 질문에 대해 작품 속 ‘누구씨’는 이렇게 답한다. ‘저는 그저 누구씨일 뿐이에요.’

그렇다. 나는 나일 뿐이다. 다양한 정체성의 라벨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존재를 오롯이 그 존재 자체로 봐야 하지 않을까? | 김성진 |

“나의 허즈밴드는 료우지, 료우지의 허즈밴드는 나”
“웬지 눈이 확 트이네. 난 아무것도 몰랐구나”



© 2016, 타가메 겐고로 지음, 김봄 옮김, 길찾기 | 전 4권

#게이 #장미 #순한맛 #입문작 #편견깨기 #각자가_서로의_허즈밴드

동성애를 코드로 이용하는 섹슈얼리티 판타지인 BL과는 달리 남성 동성애 그 자체를 다루는 장르로는 일본의 오랜 남성 동성애 잡지인 《장미족》에서 따 온 ‘장미’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장르 만화가 본격적으로 소개된 적이 별로 없다. 타가메 겐고로는 그러한 장미 계열의 만화를 그리는 게이 만화가로서, 장미 장르가 본격적으로 소개된 적이 없던 한국의 온라인에서도 일정한 인지도를 획득하고 있던 작가다. BL

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남성 몸의 표현을 비롯해, 'BL이 동성애자들의 장르가 아님'을 말할 때 가장 듣기 좋은 예시가 되어주는 작품들이 타가메 겐고로 만화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가메 겐고로의 <아우의 남편>이 정식 발매된다고 했을 때 묘한 화제가 되었다. '드디어 짤방으로도 많이 돌아다니는 그 작가의 만화가 정말!'이라는 느낌이었다고 할까. 그러나 '본격 게이 만화'라는 데에 방점을 찍고 보면 의외로 실망하기 쉽다. 말하자면 <아우의 남편>은 비교적 순한 맛 장미물이자, 만화가 게이를 주인공으로 다룬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입문하기 좋은 '친절한 만화'다. 심지어 게이 주인공인 마이크의 입을 빌린 '게이 문화 강좌'가 중간중간 삽입되어 있어서 이 작품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읽을 수 있다.

작품의 스토리 라인은 혼자 딸아이를 키우고 있던 남자 앞에 '쌍둥이 남동생의 남편'이라는 캐나다인이 찾아오면서 생기는 이야기를 다룬다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띠고 있고, 함축미를 보여주는 작품의 제목이 대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성애자 남성으로서 혼인해 아이도 두고 있는 형 아이치는, 자신에게 "나 게이야"라 커밍아웃을 한 이래 소원해졌고 이국고 떠나 타지에서 죽고 만 쌍둥이 동생 료우지에 대해 많은 걸 잊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남편이라는 남자 마이크가 등장하면서 형은 많은 부분에서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인다. 은연중에 남녀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던 형은, 동생의 남편이 서로를 남자 역할 여자 역할이 아닌 동등한 '남편(husband)'로 지칭하는 모습 등을 보며 정리되지 않던 생각과 편견을 깨나갈 기회를 얻는다.

이 작품은 이렇듯 장면 장면에서 현실 속 편견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보게끔 만드는 데에 집중하며, 편부 가정이라는 지점에서부터 생기는 편견에다 '동성애자 고모부'에 얽힌 편견이 더해지는 모습 속에서 가족의 진짜 의미를 묻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계도로 읽힐까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인물의 역할 분배가 훌륭해서 읽는 데에 지루함을 주지 않으니까. 특히 아이치의 딸 카나의 역할은, 장미 장르에서는 나오지 않을 법한 어린 여자아이 캐릭터를 배치했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120% 증명하고 있다. | 서찬휘 |

“어제 뭐 먹었어?”



© 2008, 요시나가 후미 지음, 노미영 옮김, 삼양출판사 | 전 20권(미완결)

#게이 #성적지향 #요리 #일상 #음식취향 #어제_뭐_먹었어

〈어제 뭐 먹었어?〉는 게이 커플인 변호사 카케이 시로와 그의 연인인 미용사 야부키 켄지의 ‘먹고 사는’ 이야기를 다룬 만화다. 작은 변호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변호사 시로는 켄틀하고 합리적이며, 깔끔한 일 처리로 주변으로부터 호평받는 인물이다. 그러나 주변의 평가와 달리 그는 허술하고 소극적이며 ‘공’한 성격의 소유자다. 이런 시로가 자신의 허술한 면을 보이고 곁을 줄 수 있는 이는 그의 연인 켄지다. “이런저런 일들을 겪고 마흔 무렵에 이 녀석을 만나게 된 게 다행인 것 같다”는 시로의 내레이션은 비로소 연인 켄지로부터 안식을 찾은 그의 고백이기도 하다. 켄지는 그를 너그럽게 만들고, 허물도 좋게 봐주는 연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시로의 자부심인 요리를 계속 만들게 하는 사람이다. 시로에게 요리는 자신의 취향을 드러내는 행위이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과정이며 일상이다.

〈어제 뭐 먹었어?〉는 요리만화에 게이 커플의 일상을 버무린 이야기로 읽힌다. 변호사 시로의 요리과정은 꽤 까다롭다. 취향은 확고하고 요리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며, 자신만의 세계가 확실하다. 전업주부의 삶과 직장인 변호사로서의 삶을 모두 완벽하게 해내고 싶은 그는, 자신의 확실한 음식 취향만큼이나 성적 지향도 ‘확고하다’. 그러나 자신이 게이 커플임을 드러내는 일에는 주저한다. 그것은 개인의 음식 취향만큼 도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상처를 받거나 연인을 위로할 때, 혹은 연인과 사과할 때, 행복하고 싶을 때 등 그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요리하고, 먹는다. 그래서 “어제 뭐 먹었어?”가 특별한 물음이 아니듯 그도 남들과 똑같은 일상을 살고, 먹는다.

음식은 개인의 취향이 반영된 결과물이다. 어떤 재료를 선택할 것이며, 어떤 조미료를, 얼마만큼 가미할 것인지, 조리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따라 음식의 맛은 무한하다. 그런데 인간은 이 무궁한 음식의 세계는 개인의 취향으로 존중하면서 삶의 가장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문제이자 자신의 주체적 결정에 따른 성정체성과 성적지향에서만큼은 단 두 가지-남성과 여성-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일까. 요시나가 후미의 〈어제 뭐 먹었어?〉는 바로 이 지점에 놓인다. “어제 뭐 먹었어?”라는 평범한 물음처럼, 음식 취향을 존중하듯 타인의 성적지향도 존중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닌 사회가 오기를. | 서은영 |

“그 애를 사랑하는 동안 나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른다.”



정해나 지음

**요나캄의
목소리**

그 시절 나를 부수고, 다시 붙였던
그 마음을 반드시 다시 소환할 이 시대의 작은 명작

“이 책을 읽으며 내가 평생 이런
이야기를 기다려왔다는 걸 알았다.”

★★★
권교정,
황인찬 추천



YES24

© 2020, 정해나 지음, 다산북스 | 전 3권

#게이 #동성애 #청소년 #교회 #성장만화 #목회자자녀가 겪는

요나단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아들이다. 두 번째 왕인 다윗과 깊은 우정을 나누는 사람으로 '다윗과 요나단'으로 잘 알려졌다. 중국 고사의 관포지교(管鮑之交)와 같이 다윗과 요나단은 친한 친구 사이를 뜻한다. <요나단의 목소리>는 딜리헨스에서 2018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 3년간 연재한 만화이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021 만화독립출판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제5회 무지개 책갈피 퀴어 문학상을 받았다.

기독교계 사립학교에 입학한 의영이 기숙사 룸메이트 선우를 만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의영은 선우에게 다윗이라는 친구가 있던 것을 알게 된다. 모범생 선우와는 정반대로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일탈 청소년 다윗은 선우에게 동경의 대상이었다. 선우와 다윗의 만남은 <데미안>에서 알을 깨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주인공 싱클레어와 주변 인물의 만남과 같다. 동경의 대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의 대상으로 그려진다.

<요나단의 목소리>는 의영의 시점과 선우가 과거를 추억하는 장면을 교차하여 서사를 전개한다. 대부분의 만화가 초반부를 읽으면 어떤 소재를 다루고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예측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작품은 클리셰를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차근차근 스토리를 전개하여 서사를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독자를 만화 속으로 점증적으로 몰입시킨다. 연필을 사용하여 흑백으로 그리되 명암을 최대한 자제하여 작화에서 담백하고 순수한 느낌이 묻어난다. 개정판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다른 색으로 표현하여 시점을 구분하였다.

종교에 대해 아무런 편견 없는 의영의 시점으로 주인공 선우의 삶을 관찰하기 때문에 독자는 작가의 일방적인 메시지가 아닌 자신의 주관이나 신념, 경험을 바탕으로 만화를 읽을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잘 다루어지지 않은, 기독교 내 동성애 문제를 고등학생의 이야기로 풀어냈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요나단의 목소리>가 매력적인 이유다. | 최기현 |

“우리 아들은 아마도 게이. 단지 그런 성향을 가진 소중한 우리의 가족이다.”



© 2021, 오쿠라 지음, 김아미 옮김, 소미미디어 | 전 3권(미완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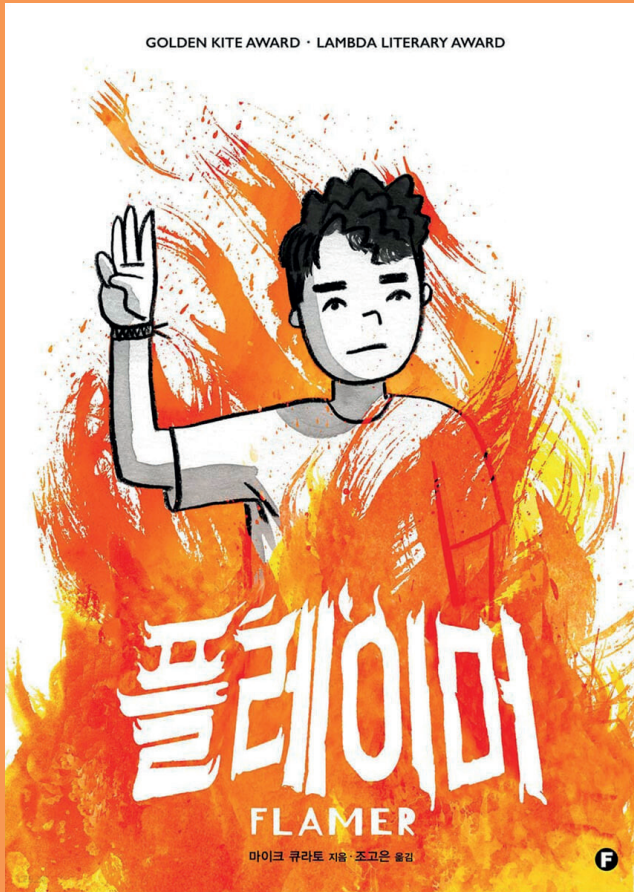
#게이 #성정체성 #성적지향 #좋아하는감정 #차이와존중

오쿠라 작가의 <우리 아들은 아마도 게이>는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에 관해 다루고 있는 작품이다. 남자를 좋아하는 “것 같은” 아들 히로키와 엄마, “애정이 가득한 가족 간의 이야기”를 통해 작가는 ‘좋아하는 감정’을 존중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히로키가 자신의 좋아하는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감정을 지키고 응원하는 주변의 모습을 통해 좋아하는 감정을 매개로 하는 관계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다. 아직 완결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지만, ‘좋아하는 감정’을 매개로 히로키와 그 가족이 성찰하고 변화하며 성장하는 모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작품에서 엄마와 동생 유우리는 여러 모습을 통해 히로키가 “아마도” 게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가 붙는 것은 히로키가 자신의 성정체성을 따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인데, 들추어 확인하지 않고 기다림과 배려를 통해 히로키와 그의 감정을 존중하고 있다. 어쩌면 그러한 모습이 엄마와 동생이 히로키를 사랑하는 방식일 것이다.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일 테니까.

만화를 보다 보니 대단해 보이는 뜻을 품고 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좋아하는 감정을 지키고 응원하며 살아가는 것도 그만큼 훌륭한 일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작가는 이 만화를 그리며 독자들의 응원에 힘입어 어머니에게 커밍아웃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한 사람이 좋아하는 감정을 지켜내는 것에는 주변의 응원이 필요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응원과 지지의 관계는 작가의 바람처럼 “뭔가 세계를 확장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낼 거라고 본다. 옳고 그름, 좋고 싫음의 관계를 넘어서는 이해와 존중, 포용의 관계를 그려 본다. | 송하원 |

“설령 그 모두가 너를 버린다 해도……너는 너 자체로 충분해.”



© 2022, 마이크 큐라토 지음, 조고은 옮김, F(에프)

#게이 #성정체성 #존재 #자기인정 #살아갈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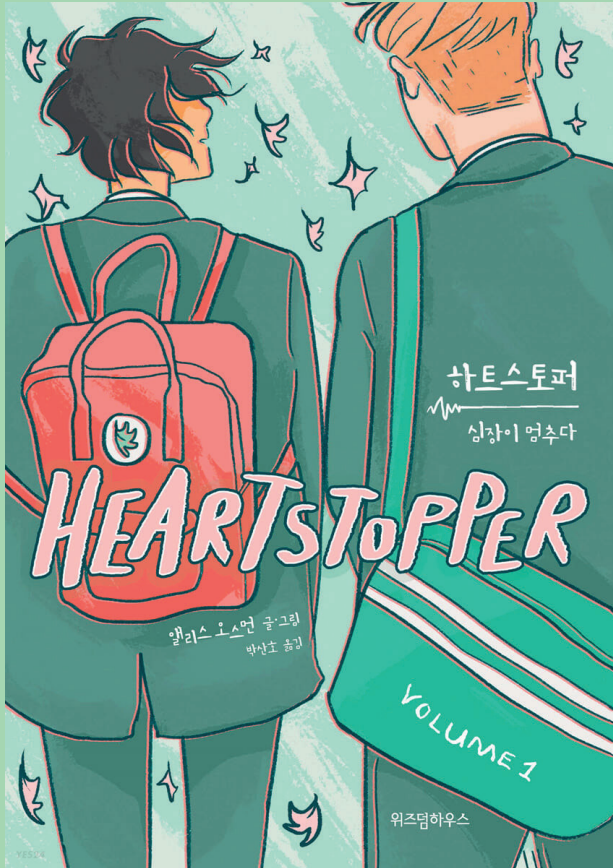
우리는 누구나 타인과 집단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한다. 그것이 자기 존재와 정체성에 관한 것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하지만 외부의 인정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자신의 인정일 것이다. 위에서 인용한 대사처럼 ‘나’는 그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마이크 큐라토의 만화 <플레이머>는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에이든의 이야기다.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필리핀계 미국인 에이든은 외모와 인종, 성적체성으로 인해 학교에서 차별을 겪고 있으며, 가정폭력에도 노출되어 있다. 에이든에게 보이с카우트 여름 캠프는 현실의 여러 문제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해방구였지만, ‘정상적인 남성성’을 강요하는 보이с카우트 캠프에서 에이든은 남들과 다른 자신의 성적체성을 마주하며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된다. 절망의 극단까지 다다른 에이든은 불꽃으로 형상화된 자신의 영혼을 만나게 되고 대화를 통해 자기 존재와 정체성을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작품의 제목인 플레이머(Flamer)는 불길, 불꽃을 뜻하지만, 속어로 파렴치한 호모, 남색, 얼뜨기 녀석을 의미하기도 한다. 한 단어에 담긴 서로 다른 두 갈래의 뜻을 작품의 내용에 대입해 보면, 후자의 뜻이 타자의 혐오에 의한 차별적 규정이라면, 전자는 스스로 찾아낸 존재의 긍정, 삶의 불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플레이머는 후자로부터 전자로, 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기 정체성의 인식과 인정으로 나아가는 에이든의 길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

<플레이머>는 작가의 자전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픽션이다. 존재를 옥죄는 숨 막히는 현실에서 작가가 자신이 발견했던 ‘살아갈 힘’, ‘내면의 빛’을 이 책을 읽게 될 ‘당신’ 또한 찾아내기를 기원한다. | 송하원 |

“우린 왜 그냥 키스하고 행복해할 수 없을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건 진짜니까.”



© 2021, 앨리스 오스먼 지음, 박산호 옮김, 위즈덤하우스 | 전 4권(미완결)

#게이 #바이섹슈얼 #다양한성정체성 #로맨틱지향성 #새로운공동체 #차이를즐기자

언뜻 보기에 엘리스 오스먼의 만화 <하트스토퍼>는 BL 장르의 다른 만화들과 별반 차이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이 작품을 두 소년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로만 본다면 말이다. 하지만 사랑에 대해 폭넓은 시선으로 깊이 있게 접근하다 보면 같은 장르의 평범한 작품들을 읽을 때와는 다른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된다.

<하트스토퍼>는 찰리와 닉을 비롯한 여러 등장인물을 통해 동성애와 양성애, 이성애,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형태의 성적체성과 로맨틱 지향성을 소개하고 있다. 인종과 국적, 취향과 MBTI 등 한 사람을 구성하는 다채로운 속성들을 세세하게 다루며, 수많은 차이점이 있는 개인들의 자유로운 결합을 그려내고 있다.

차이를 존중하기보다는 혐오하는 현실에서 차이는 곧 배제의 기준이 된다. 사실 '보편적 기준'만을 내세우는 집단은 가장 편협하고 자의적이기 쉽다. 하지만 이 작품은 성적지향을 비롯한 다양한 서로의 차이를 보듬고 인정함으로써 형성되는 새로운 관계,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차이를 인정하고, 나와 다른 타자의 존재를 긍정하는, 다양성에 뿌리내린 공동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가장 보편적인 공동체가 아닐까.

위에서 인용한 두 대사는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현실의 질곡과 그 그림자에 가려진 사랑의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 연인의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일 때, 그들의 행복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진실한 마음을 담아내지 못하는 차가운 현실에서 찰리와 닉, 두 소년과 작중 인물들의 사랑이 지금보다 더 따뜻한 세상에 대해 기대하게 한다. | 송하원 |

“전 뭔가를 바라면 늘 안 되더라고요.”



© 2016, 이동은 글, 정이용 그림, 이숲

#게이 #교통사고 #성적지향 #새로운관계 #나를이해할수있니?

환절기는 계절이 바뀌는 시기를 뜻한다. 봄과 여름, 여름과 가을, 가을과 겨울 사이에 어디엔가 있지만 어느 계절에도 속하지 않는다. 환절기 이전과 이후는 전혀 다른 계절이다. 한편 환절기는 감기에 걸리기 쉽다 아침에는 쌀쌀한데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다시 쌀쌀해지는 급격한 기온 차를 겪으면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환절기를 겪으며 우리는 새로운 계절을 경험한다.

〈환절기〉는 교통사고를 통해 관계의 변화를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수현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구였던 용준과 여행을 다녀오는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며 혼수상태에 빠진다. 수현을 간호하던 어머니는 아들의 디지털카메라를 보다가 수현과 용준이 사귀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다. 수현의 어머니는 용준을 더 이상 살갑게 대하지 않고 수현의 주변에서 용준을 몰아낸다.

성소수자를 다룬 만화가 대체로 당사자의 사랑과 아픔, 당사자가 경험하는 사회적인 벽을 다룬 것에 비해 〈환절기〉는 성소수자 아들을 둔 어머니와, 아들이 사랑하는 친구의 갈등을 다룬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기 위해 환절기를 겪듯이 〈환절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아픔의 시기를 오롯이 겪으며 새로운 관계로 나아간다. 이러한 감정을 담아내듯 만화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어둡지만 그렇다고 아주 절망적이지는 않다. 독자는 만화 속 등장인물들과 아픔의 시간을 겪으며, 이들이 서로를 이해하는 감정으로 발전하는 것을 함께 느낄 수 있다. | 최기현 |

프로젝트 후기



성장기 내내 '남자답지 못하다'는 말에 시달려야 했다. 시스젠더 헤테로섹슈얼이지만 천성적으로 '남성다운 나'와는 거리가 있었고, 나 스스로 그러길 바라지도 않았으나 80~90년대의 한국의 남중-남고-공대라는 환경 속에서는 적잖게 이질적이었던 모양이다. 나이를 40대 중반쯤 먹고 여성과 혼인을 해 아이를 둔 지금에서도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 대뜸 "게이 새끼인가 목소리 극혐" "군대에서 잘 처맛게 생긴 얼굴" 같은 댓글이 달리는 걸 보면 내 삶이란 꽤나 일관성 있게 '한국 사회 기준 정상 범주에 잘 속하지 않는'을 유지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나 같이 트랜스젠더가 아닌 입장에서 이와 같은 소위 '정상' 기준에 잘 들어맞지 않음을 느끼는 와중에, 실제로 성소수자에 해당하는 이들이 느끼고 있을 성적체성 혼란 또는 차별은 피부로 다가오는 정도가 완전히 다르다. 나에게 다가오던 '정상' 범주의 잣대는, 나에게야 욕설과 비아냥 정도일 것이나 이들에게는 문자 그대로 삶 자체에 대한 거부로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에 이르러 그러나 조금 더 나아져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하나같이 악다구니를 문 혐오주의자들의 몽둥이 앞에서 피투성이가 되는 꼴을 바라보고 있자니, 이 꼬인 실타래를 대체 어디서부터 풀어낼 수 있을까 아득하기만 하다. 모든 혐오는 강건하게 연결되어 있고, 끝없이 자기 아래를 만들며, 한도 끝도 없이 땅바닥으로, 지하로, 더 지하로 향한다. 나는 고작 남자답지 못하다는 비아냥을 면전에서 듣는 정도지만, 누군가는 끝내 헤어 나올 수 없는 무저갱 같은 절망 앞에서 있어야 한다. 조금만 달라도 '때려도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이렇게나 많고, 그래야 한다고 획책하는 자들도 저렇게나 많다.

성소수자의 이야기는 그래서 비단 동성애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회가 규정한 '정상'과는 다른 나, 또는 '정상'과 다른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고, 모두가 같을 수 없음을 인지하게 된 현대 사회 속에서는 결과적으로 모두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나를 확인하고 있는 모두의 삶을, 그리고 이를 만화라는 언어로 기록하고 있을 모두의 싸움을 조용히 응원한다. | 서찬휘 |

문화다양성 추천 만화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첫 번째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5개월이 걸렸다. 나를 만화 선수들이 모여있다고 생각하여 리스트 작업은 그리 어렵지 않게 빨리 될 줄 알았다. 그리고 성소수자를 주제로 다룬 만화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실제로 시작하고 보니 읽어야 할 책, 잘 몰랐던 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결국 예상보다 2개월 정도가 더 걸렸다. 하지만 이렇게 작업을 해 보니 이 프로젝트가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다. 시간과 노력을 들인 탄탄한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프로젝트 과정에서 만화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고 좋은 책을 나눠 보는 것이 너무 좋았다. 모임 내에서 쿼어에 대한 스테디를 하고, 우리 구성원 속에 쿼어와 비쿼어가 함께한다는 점도 뜻깊었다. 돈도 안 되는 일에 열심인 사람들이 모였지만, 다음엔 무엇을 해 보자 다음엔 어떤 일도 해 보자 꿈을 꾀다. 오랜만에 살짝 가슴이 두근거렸다. 우리는 또다시 다음 주제로 읽어야 할 작품의 수에 경악하며 독서 노동을 해야겠지만, 다음의 과정이 기대되고 설렌다. | 김성진 |

문학평론가로 활동하다 데이트 비용을 벌기 위해 만화평론을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한 만화평론이 벌써 3년째다. 시간 참 빠르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한 만화인의 길이 나를 바꾸어 놓았다. 내가 품고 있던 견고한 편견과 잣대를 빠르게 수정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만화를 접하고 난 지금의 모습과 예전의 내 모습은 상당히 다르다. 웃는 모습과 투박한 모습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내 안에 있는 다짐과 확신은 예전 같지 않다. 그래서 동료들과 함께 읽은 성소수자 관련 만화 읽기는 특별했다. 무엇인가 새롭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진득하게 앞으로 펼쳐질 것 같다. '흙통만화연구실'에서 몸 건강히 오래도록 이 작업을 이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 문종필 |

읽고 쓰는 일은 즐거운 일이지만 수고로운 일이기도 하다. 공적인 일로 할 때 더 그렇다. 다섯 달 전, 만화를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금천구에 있는 대안만화 전문서점 '홍통'에 모였다. 혼자 보던 만화를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는 모임을 만들었다가, 이내 문화다양성의 가치와 의미를 담은 만화를 추천하는 프로젝트를 하기로 뜻을 모았다. 첫 번째 활동으로 성소수자에 관한 만화를 읽고, 짧은 추천사와 함께 목록을 만들기로 했다. 여섯이 소일 삼아 벌인 일이었지만,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만화를 목록화하고, 기준을 세워 추리고, 읽고 정리하는 일은 즐거운 일이었지만 꽤 수고로운 일이었다. 여러 날, 여러 달 들었던 일을 마감하면서, 남는 아쉬움은 부족한 여건을 탓하는 것으로 하고 나니, 일의 목적을 위해 들인 품은 한없이 부족해 보이고, 과정의 즐거움만 가득했던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첫발을 즐겁게 뗀 것에 만족하며 다음을 기약하겠다. | 송하원 |

이 프로젝트의 출발은 좋은 출판만화를 알리자는 것이 목표였다. 웹툰에 매몰된 생태계 지형에서 점차 그 힘을 잃어가는 출판만화를 발굴하고, 소개하자는 취지였다. 그래서 주제별 카테고리를 나눠 분기별로 세션을 진행하기로 했고, 그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성소수자 | LGBTQIA+'였다. 솔직히 말하자면 재미있었지만, 어려웠다. 성소수자에 관한 이론서들을 읽으며 프로젝트를 병행했지만, 이미 성별 이분법으로 고착된 나의 뇌용량은 메모리 공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았고, 거기에 노화까지 겹치니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울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론서만 읽었다면 나는 중도에 포기했을지도 모른다. 성소수자를 주제로 한 만화책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복잡하고 어렵고, 때로는 추상적인 개념어들과, 분유할 수는 있으나 전적인 공감이나 불가능한 타인의 고통과 경험을 스토리텔링과 이미지로 재현할 수 있는 텍스트인 만화는 좋은 가이드가 되었다. 바람이 있다면, 이번 프로젝트에서 선정된 만화책들이 각 지역의 도서관에 비치되고, 관련 주제 강연들이 개설되는 것이다. <젠더퀴어>의 마이아 코베이브가 마지막 장면에서 만화강좌와 자신의 젠더 정체성을 커밍아웃하는 고민을 결부시켜 다루고 있는 것 역시 같은 바람일 것이라 생각한다. 그가 청소년 시절, 논바이너리나 트랜스젠더 교사를 만나지 못했던 지난날의 아쉬움이 오늘날에도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도 그는 최소한 지역도서관에서 ‘성소수자 | LGBTQIA+’를 주제로 한 다수의 책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덕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었다는 점은 강조하고 싶다. 더불어 점차 확장해 가는 한국만화의 다양성도 주목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서은영 |

홍통만화연구실 동료들과 함께 시도한 첫 번째 프로젝트를 이제 막 마쳤다. 성소수자를 주제로 한 만화를 읽고 추천 도서를 함께 고르는 것은 어렵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어려운 작업이었다. 이번에 선정한 만화는 당사자성을 담은 작품이 많기 때문에 주인공에게 자신을 이입하는 독자도 있을 것이다. 사람마다 지향하는 가치관은 다르다.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편향적인 시각은 옳지 않다. 성소수자를 지지하지 않으면 편협한 사람으로 단정 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적으로 보수나 진보를 각각 지지하는 사람이 함께 살아가듯이 말이다. 독자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새로운 판단의 계기를 제공한다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가장 큰 유익이다. 판단은 독자의 몫이다. 다음 프로젝트에서도 만화와 함께 인식의 세계가 더욱 넓어지길 기대하며. | 최기현 |

흙통만화연구실 및 필진 소개

흙통만화연구실

만화를 사랑하는 연구자, 평론가, 칼럼니스트, 만화인이 함께 모여 만화를 연구합니다. 한 뼘 더 깊이 만화를 들여다보고, 작품이 가진 사회적 의미와 새로운 쓰임새를 모색합니다.

김성진

문화기획자, 만화인,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겸임교수. 좋아하는 만화를 나누고 더 알고 싶다는 생각으로 축제, 전시, 글쓰기를 하고 있다. 대안 만화 전문서점 <흙통>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문종필

문학평론집 『싸움』(2022)을 출간했다. 우연히 만화인의 길을 걷게 되어서 요즘은 즐거운 마음으로 작업하고 있다. 작년까지 인천일보에 [문종필의 오늘 만화]라는 코너에 글을 썼고, 지금 현재는 오마이뉴스와 『지금, 만화』, <만화규장각> 등에 만화 관련 글을 쓰고 있다.

서은영

만화연구자 및 평론가. 근대만화부터 웹툰까지 만화와 웹툰이 사회, 문화에 끼친 영향력에 주목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는 일을 업으로 삼아 고군분투하며 꾸준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찬휘

만화 칼럼니스트, 만화 창작자. 저서 『키워드 오덕학』 『나의 만화유산 답사기』 『덕립선언서』 등. 홈페이지 : seochanhwe.com / 블로그 : blog.naver.com/seochanhwe

송하원

대안 만화 전문서점 <흙통> 공동대표. 칸과 칸 사이 비어있는 공간의 이름을 따서 서점을 차렸다. 만화와 다양성을 매개로 사람, 마을, 문화를 잇는 ‘사이의 상상공간’을 만들고자 한다.

최기현

만화평론가. 서브컬처에 담긴 가치를 알리는 것에 관심이 있다. 재미있는 RPG 게임이나 웹소설, 웹툰, 전시와 공연을 추천해준다면 언제나 환영이다.